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상실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이 나 립

상실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이 나 립

인 준 서

이나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정병운 (인)

심사위원 이만수 (인)

심사위원 노신경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23년의 ‘기억할 모든 죽음과 낯들에게 초를 밝힐 것’ 석사 학위 청구 전시 작품들을 바탕으로 상실의 감정과 경험에 주목하여 이를 화면에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이다.

예술은 삶 속에서의 수많은 외적 요소인 경험과 그로부터 생겨난 생각, 감정과 같은 내면적 요소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경험은 작품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인의 작품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특히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작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겪었던 상실감을 직시하고 떠올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고, 이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삶 속의 수많은 다른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작업으로 발현되었다.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상기하여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자를 회화에 활용하는데, 이를 서로 다른 매체인 문자와 회화를 하나의 동일한 내재적 사고와 감성을 전달하는 예술로서 설명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비가시적인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가시적인 흔적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재료와 표현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표현 방식들이 본인의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았다.

슬픔과 고통을 동반한 상실의 감정들은 내면에 축적되고 응축된다. 이를 창작을 통한 감정 표출 행위를 통해 내면의 부정적 요소들을 치유하고 환기 시키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개인적이지만 보편적인 상실의 경험을 화면에 담담히 담아내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는 작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예술과 경험	3
1. 상실의 감정과 경험	3
2. 문자와 회화	7
III. 경험의 표현	11
1. 중첩을 통한 표현	11
2.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표현	15
IV. 결론	32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부모>,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19	15
【작품 2】 <뜨거운 줄도 모르고 손이 하나가 될 때까지>,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19	17
【작품 3】 <어쩌다 당신이, 그런, 아름다운 일을 겪으면, 절대로 발음해서는 안돼 요. 우리의 포옹은 명분이 필요해요, 여기가 그렇게 외로운 곳이에요>,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19	19
【작품 4】 <아빠의 유서>,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23	21, 22
【작품 5】 <찬민이의 유서>,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23	24, 25
【작품 6】 <유언>,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23	26
【작품 7】 <내리 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것인가, 슬픔은>, 장지에 혼합재료, 70x70cm, 2023	28
【작품 8】 <내리 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것인가, 슬픔은>, 장지에 혼합재료, 70x70cm, 2023	28
【작품 9】 <내리 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것인가, 슬픔은>, 장지에 혼합재료, 70x70cm, 2023	28
【작품 10】 <내리 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것인가, 슬픔은>, 장지에 혼합재료, 70x70cm, 2023	28
【작품 11】 <발인>, 장지에 혼합재료, 190x300cm, 2023	31

도 판 목 차

[도판 1] 〈발인〉 작업 과정, 장지에 혼합재료, 2023	13
---	----

I. 서 론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상황과 기억, 감정을 매일 경험한다. 수많은 외적인 경험들은 감각과 지각에 의해 주어지는 내적인 인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작업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슬픔과 고통을 수반하며 개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준다. 본인은 이러한 상실의 감정과 경험에 집중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기저에 깔려있던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상기하여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직시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개인적인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마주하고 그에 대한 고찰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자와 회화를 사용한다. 문자와 회화를 뜻을 전하는 동일한 매체로서 이미지화된 문자 그 자체로 의미와 감정을 전달을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같은 감정을 느끼고 경험한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론의 제II장 예술의 경험 중 제1절 상실의 감정과 경험에서는 연구자가 상실의 감정에 주목하게 된 이유와 그에 파생된 또 다른 상실의 경험들이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존 듀이의 경험론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제2절 문자와 회화에서는 서화일치론(書畫一致論), 서화동원론(書畫同原論), 시화일률론(詩畫一律論)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자와 회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이를 하나의 예술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Ⅲ장 경험의 표현 중 제1절 중첩을 통한 표현에서는 비가시적인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가시적인 흔적으로 표현하는 재료로 목탄, 먹, 호분에 대해 서술하며 이 재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인 중첩의 표현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먹의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스텐실 기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마지막 제2절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표현에서는 본인의 작품에서 상실의 감정과 경험이 앞서 살펴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화면에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예술과 경험

1. 상실의 감정과 경험

인간은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관련하여 많은 상실감을 느낀다. 상실감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며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실을 세분화하면 죽음에 의한 상실, 물질적 상실, 인간관계의 상실, 심적 상실, 역할과 조직의 상실, 기능적 상실, 일반적 상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기능적 상실은 신체적 또는 신경생리적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선천적 기능상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외부 사고에 의한 상실, 그리고 나이가 들며 나타나는 노화현상의 결과이다.¹⁾ 본인은 고등학교 학창 시절 기능적 상실을 경험하였다. 질병으로 8시간의 수술을 경험하며 신체적 기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많은 상실의 감정을 느꼈다. 이는 본인의 기능적 상실의 경험이기도 했지만, 본인의 죽음 이후 가족이 느끼게 될 상실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경험이기도 했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갔고, 남은 이들이 겪게 된 상실의 시간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상실의 경험들은 본인의 내면에 축적되어 감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험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본 것, 즉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뜻하며, 철학적으로는 감각과 지각에 의해 주어지는 인식을 말한다.²⁾ 즉 직접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내면의 요소

1) 김춘경, 이윤주,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2) 경험 [經驗],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들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철학적 의미는 외적, 내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경험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지는데, 브렌넨(J.G Brennan)에 의하면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좁은 뜻으로 경험은 감각(Sensation)이라 할 수 있다. 경험은 인간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더 넓은 의미의 경험은 관찰(Observation)이다. 셋째, 경험은 강렬한 인상을 받은 사건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넷째, 경험을 의식(Consciousness)이라 보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나는 경험하고 있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과거 훈련(Past Practice)에 의해서 어떤 일의 해결 능력을 갖춘 이를 ‘경험자’라고 말한다. 훈련 또한 경험에 포함되는 행위로 훈련을 통해 습득된 익숙한 지식이라 볼 수 있다.³⁾ 이렇게 바라보는 경험은 단순히 체험이 아닌, 삶 속에서의 외적, 내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끊임없는 행위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인간과 지식의 모든 근원이 경험에 있다고 말하는 다양한 경험론자들은 경험이 지식을 얻는 가장 믿을만한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경험을 중심으로 철학을 전개했으며, ‘1온스의 경험이 1톤의 이론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할 만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험이란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에 적응해가는 모든 과정이며 생명의 과정에서 개념, 지식, 사고, 이론 등은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혹은 도구라 간주했다. 경험을 삶의 과정과 결과의 총체로 본 것이다.

삶은 시간의 연속이자 경험의 연속이다. 수많은 경험은 다른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한다. 존 듀이는 경험은 개인과 환경을 구성하는

3) J.G. 브렌넨, 『철학의 의미』, 학문사, 1977, pp.193~201

요소의 상호작용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물이며, 일회적인 것이 아닌 환경과 끊임 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형성하게 하여 기존의 경험을 재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은 선행 경험에 영향을 받고 후속 경험에 영향을 주며 끊임없는 재구성과 갱신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경험이라 보기는 어렵다. 경험의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경험이 성립되는 것이다. 존 듀이는 이러한 원리를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한다.

“한 아이가 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경우, 그가 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 자체만으로는 경험이 될 수 없고, 그 동작이 결과로서 그가 겪게 되는 고통과 연결될 때 비로소 경험이 성립된다. 그때로부터 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은 화상을 의미하게 된다. 화상을 입는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의 결과로서 지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무토막이 타는 것과 같이 단순한 물리적 변화에 불과하다.”⁴⁾

즉, 손가락을 불속에 집어넣는 능동적 요소와 고통을 겪게 되는 수동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아이는 불은 뜨거운 것이라는 내적 지각을 이루어 경험이 성립되는 것이다.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지식, 생각, 감정 등 수많은 경험의 축적은 후속 경험에 영향을 주며 우리를 성장시킨다.

수술로 인한 상실의 경험은 강렬하고 큰 사건으로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외부의 상실의 경험들과 결부되어 많은 고찰을 하게 했다. 얼굴 한번 뵈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대신해 유일하게 곁을 지켜주신 외할머니는 집안의 막내였던 본인에게 남다른 사랑을 주셨다. 그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주하게 된 상실의 경험은 본인에게도 큰 슬픔과 고통을

4) 존 듀이, 『민주주의와 경험』, 이흥우 옮김, 교육과학사, 2007

주었지만, 부모를 잃은 슬픔과 상실의 경험을 마주하게 된 어머니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내가 느끼게 될 가족을 잃은 상실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상실의 경험을 통해 여러 방면의 상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는 같은 반 친구를 교통사고로 잃고, 키우던 동물을 보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등 수많은 상실의 경험들과 함께 내면에 축적되어갔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상실에 대한 생각과 다른 이들의 상실에 대해 주목하게 하였으며 작업으로 표출되어 또 다른 감정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창작 과정은 말로 하기 힘들었던 삶의 아픈 부분들을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외부로 표출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내면의 부정적이고 억압되어 있던 응축된 슬픔과 고통의 상실감을 마주하고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상실의 감정은 치유되고 환기되었다. 이는 본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앞으로 겪게 될 상실의 경험을 미리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상실의 경험이라는 외부적 상황으로 인한 내면을 깨달음으로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2. 문자와 회화

인간의 사고와 감성을 함축된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글과 그림은 공통점을 가진다. 실제로 미술의 주제나 영감을 문학적 요소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시인들 또한 사상이나 소재를 그림에서 유추해 내기도 한다. 즉 글과 그림은 상호작용을 통해 형상 너머의 뜻을 전하는 동일한 매체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서(書)와 화(畵)는 표현하는 형식은 다르지만 품은 뜻을 드러내는 형식의 측면에서의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이해되었다. 글씨와 그림은 기원이 같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서화일치론(書畵一致論)은 중국 당나라의 장언원(張彦遠, 815~875경)이 저서 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에서 주장하였다. 장언원은 고개지(顧愷之, 344~406) · 육탐미(陸探微) · 오도자(吳道子) 등의 용필(用筆)을 연구하면서 글씨와 그림의 용필법(用筆法)이 같음을 깨달았으며 서(書)를 높이고, 화(畵)를 경시하였던 서화의 차등적 인식을 바로 잡으려 했다. 정초의 서화동출론(書畵同出論) 또한 서화의 차등적 인식을 바로 잡으려 하였으며, 서화는 나라의 기틀을 잡는 것에 기여하고 천하의 일을 실행하는 실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원나라 때의 조맹부(趙孟頫, 1254~1322)에 이르러 심화되었는데, 조맹부는 그림과 서예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서화동원론(書畵同原論)'을 내놓았다. 즉, 장언원은 서화의 근본과 용필법(用筆法)이 같으나, 글씨는 뜻을 나타내고 그림은 형(形)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화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한 데 반하여, 조맹부는 서화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며 서예적인 심미 기준을 회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입하고자 하였다.⁵⁾ 이 세 가지 견해에는 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인 사대부들에게 경시되었던 회화의 위상을 높혀 이를 동등하게 만드는 동일한 사유가 담겨있으며, 서와 화는 다른 장르이지만 상형에서 출발한다는 근원이 같다고

5) 서화일치론 [書畵一致論], 두산백과, 2023. 12. 7.

여겨진 것을 볼 수 있다. 서화의 필법 또한 지필묵을 재료로 한다는 점에서도 필묵의 운용과 기법이 상통하며, 이르는 곳은 같다고 보았다.

그림과 글씨를 동일시하는 관념은 그림과 시를 결합시키려는 단계로까지 발전된다. 이는 단지 그림으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화의(畫意)를 시문으로 보충한다는 발상이 아니라, 시의 시각성, 그림의 청각성을 요구하는 시화(詩畫)의 적극적인 결합을 의미한다.⁶⁾ 송시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문인이자 화가였던 소식(蘇軾, 1036~1101)은 시와 그림이 모두 가슴속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동일한 것이라는 시화일률론(詩畫一律論)을 주장하였다. 문인화의 종조(宗祖)로 추앙되는 왕유(王維, 699?~761)의 그림을 일러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畫 畫中之詩).”⁷⁾고 한 소식의 언급은 바로 예술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시와 그림은 하나라고 본 것이다(詩畫一律論). 고려 후기의 이인로(李仁老)는 “시와 그림이 오묘함에서 서로 근원이 같아 일률이라 하고 옛사람은 그림을 소리 없는 시(無聲詩), 시를 운이 있는 그림(有韻畫)이라 했으니, 물상을 모사하여 하늘의 비밀을 나누어 내는 기술이 서로 기약하지 않아도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조선 초의 성간(成侃, 1427~1456)은 “그림과 시는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전혀 가릴 수 없다(詩畫爲一致 輕重未可分毫釐)”⁷⁾고 하였다.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을 비롯한 조선 말기의 여향 문인 화가들은 시와 그림은 같은 이치와 하나의 법으로 이룩되며, 시는 그림으로 참여하고 그림은 시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서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로 시화의 융합을 절대시 하였다.⁸⁾

동양의 미술에서는 이렇게 글씨와 그림의 근본을 동일하게 여기며 문자와 이미

6) 국사편찬위원회, 『그림에게 물은 사대부의 생활과 풍류』, 두산동아, 2007, p.270

7) 성간(成侃), 「기강경우(寄姜景愚)」, 성간의 주요 작품 중 하나로 강희안에게 준 시이다.

8) 시화일률 [詩畫一律],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 1991

지가 한 화면 안에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지만, 이후 현대의 서구 문화를 접하며 문자와 그림의 사이는 단절되기 시작했다. 그림은 이미지의 역할을, 문자는 의미만을 나타내는 이질적인 요소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미술의 작가들 사이에서도 문자의 이미지 출현이 보이고 있다. 우리의 전통 미술의 맥락과 미술 현상의 측면에서 현대미술에 나타난 일반적인 문자 사용의 표현 유형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전통적 회화의 연장으로서 예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우로 문자 그 자체의 감각 표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둘째, 소리나 문자로부터 상징적, 주술적 힘을 회복하고자 문자를 도입한 경우이다. 이들은 문자의 일상적 가치 이전의 순수의 원형 체계를 추구하며 인간 언어의 힘을 회복하고자 한다. 셋째, 문자를 단순히 구성적으로 조직하거나 지극히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넷째, 일종의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써 문자를 사용하며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미술을 추구한다. 마지막 다섯째, 문자 그 자체를 도상화시키며 문자와 이미지 그 둘 사이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⁹⁾

본인의 작업에서 문자의 표현은 마지막에 언급한 문자 자체를 도상화 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전통 문인화의 화제(畫題)와 같이 철학이 담긴 글과 그림을 한 화면에 표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문자와 회화의 구분을 없애고 이를 융합하여 하나의 예술로 표현함을 목표로 두고 있다. 화면에 나타내어진 문자들은 글씨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는 글씨가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형(形)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문자의 해석적인 부분보다 이미지화된 문자 그 자체로 의미와 감정을 전달한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된 상실의 감정뿐만 아니라 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간접적인 상실은 또 다른 형태의 상실의 경험으로서 본인의 작업에 중요한

9) 이수균, 『건축가, 장세양』, 문자와 이미지1 - 쓰여진 이미지와 그려진 이미지, 1996년 10월호, pp.136~137

요소로 작용한다. 시와 소설, 길에서 만난 짧은 문장들과 같이 상실의 이야기를 담은 문자들은 내면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동일한 매체로서 회화와 함께 표현된다. 문자를 이미지화 시켜 그 자체가 회화성을 갖는다는 것은 상실의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시도이다. 글과 그림의 상호 보완을 통해 더 명확한 의미와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초기 작품에서 문자의 형태는 작품의 제목으로 차용되거나 화면의 한 부분에 등장하며 간접적인 형태를 띠지만, 이후 서로 다른 매체인 문자와 회화를 하나의 동일한 내재적 심미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인식과 이해를 통해 화면에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구성 방식을 띠게 된다.

Ⅲ. 경험의 표현

1. 중첩을 통한 표현

작품에 있어서 적절한 재료의 사용과 표현 방법은 회화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루어 내는 1차적인 부분으로 재료의 물성과 기법은 같은 주제를 표현하더라도 각자 다른 작가만의 개성이 생겨난다.

본인은 종이에 연필, 목탄, 먹과 호분을 주재료로 사용하는데, 연필과 목탄은 쓰고 지울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적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재료이다. 이 중 목탄은 밀그림 같은 그리고 지워버릴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화면에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여 흔적을 만든다. 이는 흘러가는 시간 속 수많은 상실의 감정과 경험들의 흔적이며, 이에 대한 본인의 사유와 고뇌의 흔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이의 하나로 두껍고 질긴 장지는¹⁰⁾ 먹이나 안료를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지만 목탄은 장지에 흡수되는 것이 아닌 표면에 가루가 쌓이는 형식이다. 장지의 표면에 목탄으로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여 종이의 표면을 일어나게 만들고, 밀려 올라온 종이의 부분들은 표면에 요철을 만들어 낸다. 새하얗고 매끄러웠던 종이의 표면에 마치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쏟아 내듯이 밀려 올라온 종이의 요철과 목탄의 가루들은 본인의 상실을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재료이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목탄가루를 장지에 고정시키는 것은 영구적이거나 완벽한 화면의 접착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목탄의 한계로 보이며, 이러한 흔적의 표현을 장지와 상성이 좋고 전통 재료인 먹으로 대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10) 장지 [壯紙],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먹은 뛰어난 변화가 가능하다. 동양화의 먹은 현색(玄色)이라 하여 태양빛에 의한 것이 아닌 태양이 없어도 존재하는 우주의 본색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지닌 농담 층차는 우주 만물을 이루는 수만 가지 색의 풍성함을 의미하며 천변만화한다.¹¹⁾ 깊고 얇음, 농담, 건습 등으로 각종 사물이 갖춘 색과 빛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본인의 작품에도 먹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지에 먹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장지 표면에 있는 미세한 요철 사이로 먹이 스며들어 깊고 풍부한 색채감을 내기 때문에 보다 깊은 상실의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장지에 스며드는 먹의 성질을 이용하여 겹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전에 칠한 색과 나중에 칠한 색이 서로 반투명한 상태로 비쳐 보이거나 진한 색에 가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먹의 겹은 발색되는 농도와 겹의 횟수에 따라 탁해질 수 있는데, 이는 먹의 겹침만으로는 중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효과적인 중첩을 위해 호분으로 먹의 겹 사이에 또 다른 겹을 만들어낸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풍화된 대합(大蛤), 굴 등의 조개껍질을 빻아 만든 호분은 전통적인 흰색 안료로,¹²⁾ 이를 먹 위에 올려 반투명한 막을 씌워 흔적처럼 보이게 하거나 표현된 화면 위에 또 다른 겹을 만들어 낼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앞선 재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중첩을 통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독일의 예술심리학자인 루돌프 아른하임(Rodolf Arnheim, 1904~2007)에 의하면 중첩은 지속적인 시각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변화를 창출해 내는 방편 중의 하나로, 보는 방향에 따라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고 이에 의해 중첩과 같은 겹쳐지는 현상이 생겨난다. 또한 대상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상들을 통합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¹³⁾ 즉, 그리는 과정을 통해 상실의 감정은 가려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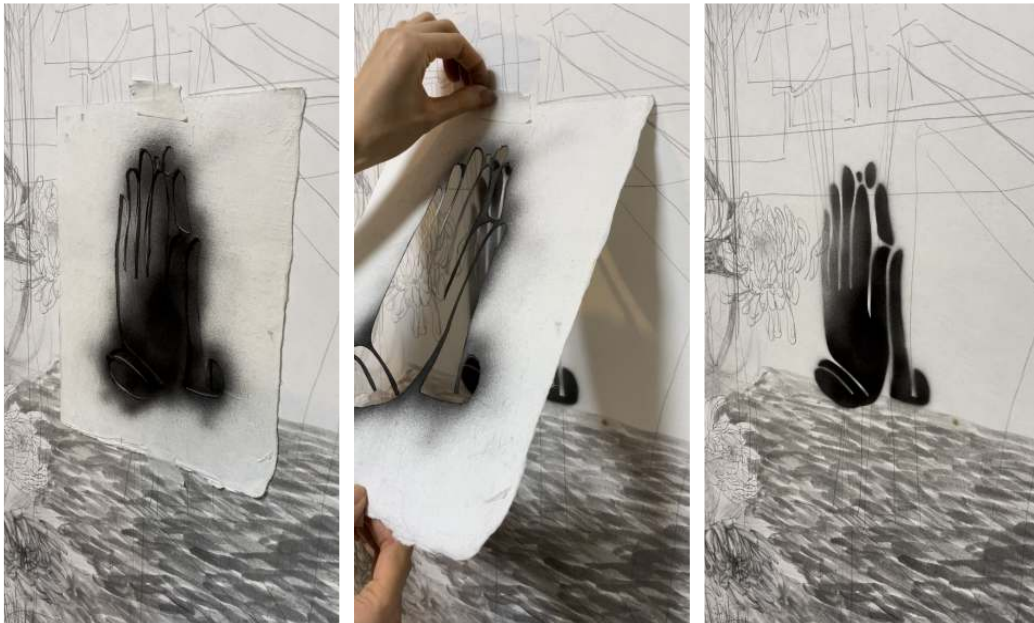
11) 이정화, 『일희일비하는 그대에게』, 달꽃, 2020

12) 호분 [胡粉],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

13) 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옮김, 흥성사, 1980, p.360

겹쳐지거나 제거되어 결국 변화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상실의 경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내면에 응축된 상실의 감정들을 가리고 변화시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낸다. 또한 마음속에만 남겨있던 부재의 대상의 흔적들을 실재하는 이미지로 치환시키는 중첩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추모하고 주변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먹을 이용한 스텐실 기법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소소한 취미로 물건에 스텐실 작업으로 꽃을 수놓는 장면을 기억하고 작업에 이용한 것이다. 스텐실이란 글자나 무늬, 그림 따위의 모양을 오려 낸 후, 그 구멍에 물감을 넣어 그림을 찍어 내는 공판화 기법으로 예로부터 천이나 벽, 가구를 장식에 자주 활용되었다.¹⁴⁾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을 장지에 따로 스케치하고 모양의 안쪽 부분을 오려낸 후, 에어스프레이건으로 먹을 분사시켜 그 안을 채워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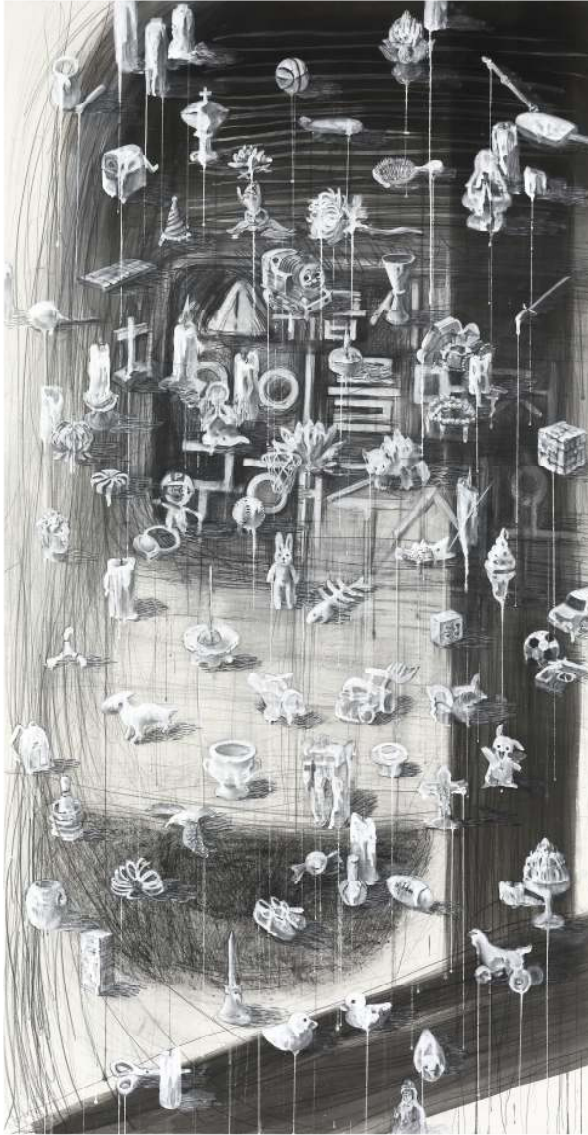
[도판 1] 〈발인〉 작업 과정, 장지에 혼합재료, 2023

14) 스텐실 [stencil], 두산백과, 2023. 11. 11.

이러한 스텐실 기법은 중첩을 통해 만들어진 흔적들로 채워진 화면에 먹을 오려 붙인 듯한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이는 일상의 경험과 기억의 흔재 속에서 추모의 대상과 그를 위한 도상들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여 본인이 집중하는 상실의 기억들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

하나의 재료의 중첩으로 단조롭고 지루하기 쉬운 화면에 먹과 호분, 연필과 목탄의 중첩을 통해 변화와 율동감을 주며 우연의 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겹과 겹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러한 중첩의 효과는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을 표현하는데 응용되어 깊이 있는 화면의 표현과 상실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색채의 절제와 흔적들에서 오는 사유의 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준다.

2.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표현



【작품 1】 〈부모〉,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19

예술가에게 있어 작업은 자아 표현의 수단으로서 내면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 낼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본인은 내면의 기저에 깔려있던 상실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솔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인과 같은 경험을 한 이들을 주목하고 관찰하여 이야기를 담아낸다. 일상에서 경험한 상실감을 포착하고 이를 본인의 상실과 결합시켜 본인만의 감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작품 1】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창밖에 지나가는 자동차의 뒷유리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게 되는 사소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위급 시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 문장을 처음 보았을 때 감정의 경험은 작업의 동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삶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본인이 겪었

던 상실의 경험과도 일치했지만, 언제든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비극의 순간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미리 고지하는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형성된 상실의 감정들은 일상에서 마주친 상실의 이야기가 담긴 하나의 문장을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본인의 경험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감정으로 화면에 표출된다. 미래에 겪게 될 수도 있는 상실의 경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히 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포착된 문장은 연필과 먹, 호분을 사용하여 그리고 덮는 과정을 반복하며 중첩을 만들어 내고, 이로 인해 흐릿한 흔적을 지니게 된다. 이는 뜻을 나타내는 글씨의 역할과 함께 슬픔이 묻어나는 상실의 감정을 표현하는 회화의 역할도 하고 있다. 【작품 1】은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한 초기 작품으로 문자를 화면에 적극적으로 끌어와 이미지화 시키기보다는 화면의 일부분에 문자가 표현되는 간접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표현된 이미지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생각했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난감과, 이와는 동떨어진 도상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도상(圖像, Icon)은 종교, 신화 및 그 밖의 관념 체계상 어떤 특정한 의의를 지니고 제작된 미술품에 나타난 인물 또는 그 형상으로¹⁵⁾ 대부분의 종교적 의미와 예술적 형태를 구유하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도상들은 특정 종교를 칭한다기보다는 슬픔을 감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화면에 나타내어진다. 각자만의 종교와 방식으로 상실의 감정을 견뎌내고 이는 일상적인 요소들과 혼재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의 모호함을 보여준다. 버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이 풍경은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지만 작업으로 발현되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상실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15) 도상 [圖像],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작품 2】 <뜨거운 줄도 모르고
손이 하나가 될 때까지>,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19

가끔은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꿈에서의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났고, 꿈에서 깨자마자 그 꿈의 내용과 장면을 끄적여 놓았다. 꿈에서 본인은 어둡고 끝없는 계단을 씬없이 뛰어 내려가고 있었다. 한참을 내려가던 계단의 어떤 층에서 늙은 아들과 그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버린 그의 어머니가 함께 손을 맞잡고 초를 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보냈는지 촛농은 흘러내려 그들의 손등 위를 덮었고, 그 주름진 손등 위에는 촛농이 가득 뒤덮여 마치 그 둘의 손이 하나가 된 듯이 보였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손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며 그렇게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그들의 손 주변에는 다른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를 기리던 흔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꿈에서 그 장면은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남은 이들이 겪어야 상실의 감정은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다른 이들의 상실의 시간을 꿈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경험은 본인의 상실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 2】로 발현되었다. 큰 수술을 겪으며 본인의 부재로 인해 상실의 경험을 겪게 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던 경험을 꿈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 상실의 감정이 얼마나 클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한 장면을 화면에 그려냄으로써 꿈속의 그들과 같이 상실의 시간을 보낼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작업에 임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손에 촛농이 뒤덮은 장면은 주변에 표현된 도상들과는 다르게 중첩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연필로 선을 쌓으며 손의 떨림과 양초의 불빛이 일렁거림을 표현하며, 흰색 안료인 호분을 쌓아 촛농들이 계속해서 녹아 흘러 내림을 표현한다. 중첩된 선과 호분에서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은 이들이 견뎌내고 있는 슬픔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끊임없이 저장되고 잊혀지는 수많은 상실의 기억들을 표현한다. 또한 이 중첩의 과정을 통해 본인의 상실의 감정을 함께 표출하여 이를 변화시키고 털어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어느 날 꾸었던 꿈으로부터 시작된 사소하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창작을 통해 보다 보편적인 고민을 던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사유를 통해 본인의 상실의 감정을 추스르고 다른 이의 상실을 감정을 보듬을 수 있었다.



【작품 3】 <어찌다 당신이, 그런,
아름다운 일을 겪으면, 절대로 발음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포옹은 명분이 필요해요,
여기가 그렇게 외로운 곳이에요>,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19

어찌다 당신이, 그런,
아름다운 일을 겪으면,
절대로 발음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포옹은
명분이 필요해요, 여기가
그렇게 외로운 곳이에요.¹⁶⁾

사랑하는 친구이자 소설가인 김
그루 작가의 ‘낙엽 하나가 자랄
때’의 소설 속에서 만나게 된 이
문장은 이상하게 마음속에 남는
문장이었다. 이는 상실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
아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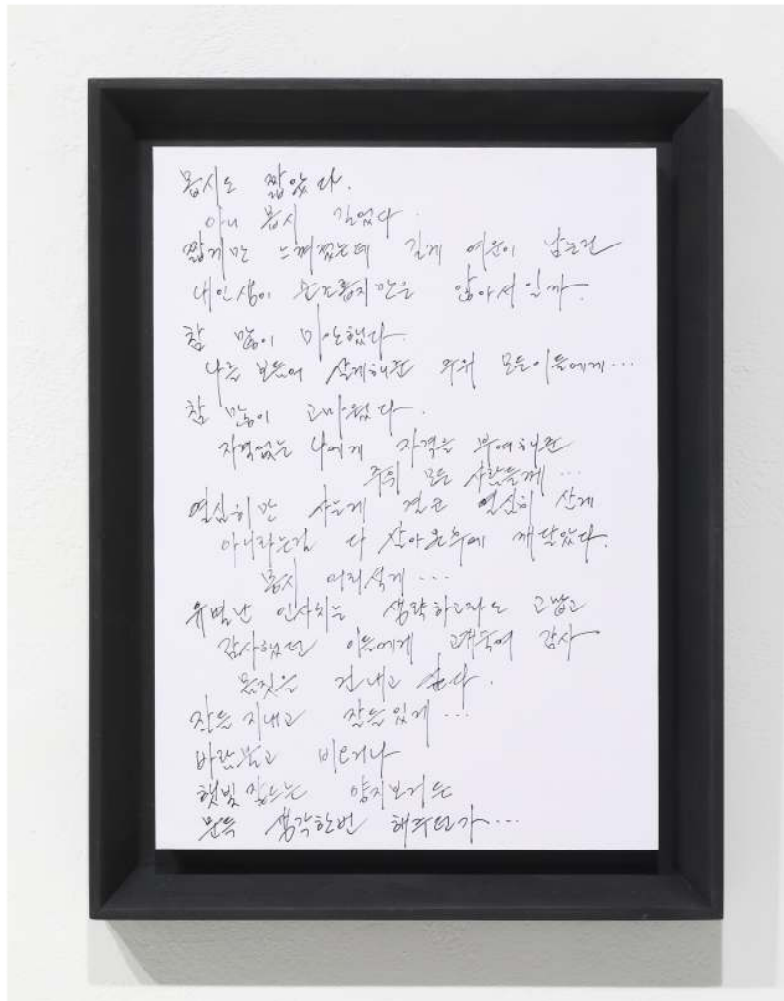
【작품 3】에서 이 문장은 작품
의 제목이자 화면 전체를 구성하
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문자와 회화의 구
분을 없애고 문자 자체가 회화성
을 지닌 작품이다. 이 작업에서
의 문자는 적어내려 갔다기보다
는 문자를 그려냈다고 볼 수 있
다. 문자는 그리고 지워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흐르는 듯한 흔적
들을 남기는데, 자세히 보면 문

16) 김그루, 『낙엽 하나가 자랄 때』, 지식과감성#, 2018, p.90

자들이 조합된 문장이지만 중첩의 표현으로 인해 하나의 이미지로 보인다. 문자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형을 나타낸다 볼 수 있으며 그 이미지 자체로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작품의 주된 재료는 목탄과 호분으로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상실감의 흔적을 남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목탄의 내구성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이지만, 이후 문자와 회화의 융합이 도드라지는 【작품 4】, 【작품 5】의 시작점이 되므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이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 사실을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창 시절 큰 수술로 죽음을 누구보다 가깝게 느끼게 된 경험은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 본인의 부재로 인해 남은 이들이 느끼게 될 상실의 감정, 반대로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본인이 느끼게 될 상실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슬픔과 고통을 수반했다. 우리는 그 끝을 선택할 수 없고, 언제 어디서 죽음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그 마지막이 오기 전, 본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작업을 핑계 삼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대했는지 알게 되는 것은 본인이 행하는 예술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행운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시작된 된 유서 작품은 본인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서를 받아 이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간 유서를 전달받고, 화면에는 유서의 일부분을 가져와 문자를 회화화시킨다. 삶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고 찬찬히 적어내려가는 경험은 그들에게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이를 전달받은 본인 또한 사랑하는 이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자 언젠가 겪게 될 상실의 경험을 담담하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작용한다.



【작품 4】 <아빠의 유서>, 2023

유서 작품에서 화면에 표현된 문자들은 가독성을 위한 글이 아니다. 이미 직접 쓰인 유서에서 문자는 글의 역할로 뜻을 전달하고 있으며, 작품에서의 문자는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생각과 삶이 담겨 있는 서사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회화적 요소로 그려지고 있다. 문자를 목탄과 호분으로 그리고 지워냄을 반복함으로써 시간의 축적과 깊이가 생겨나고, 중첩의 시간 동안 사랑하는 이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는 과정을 거친다.



【작품 4】〈아빠의 유서〉,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23

유서 작품의 가장 첫 번째 인물은 아버지였다.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구성원이자 평생을 가족을 위해 고생하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으로 삶을 마무리 짓고 싶으셨을까. 아버지의 딸로서 유서를 받아 작업하는 일은 감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이 오기 전 작업을 핑계로나마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좀 더 사랑하고 기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던 작업이다. 아버지의 유서 중 작업으로 표현된 부분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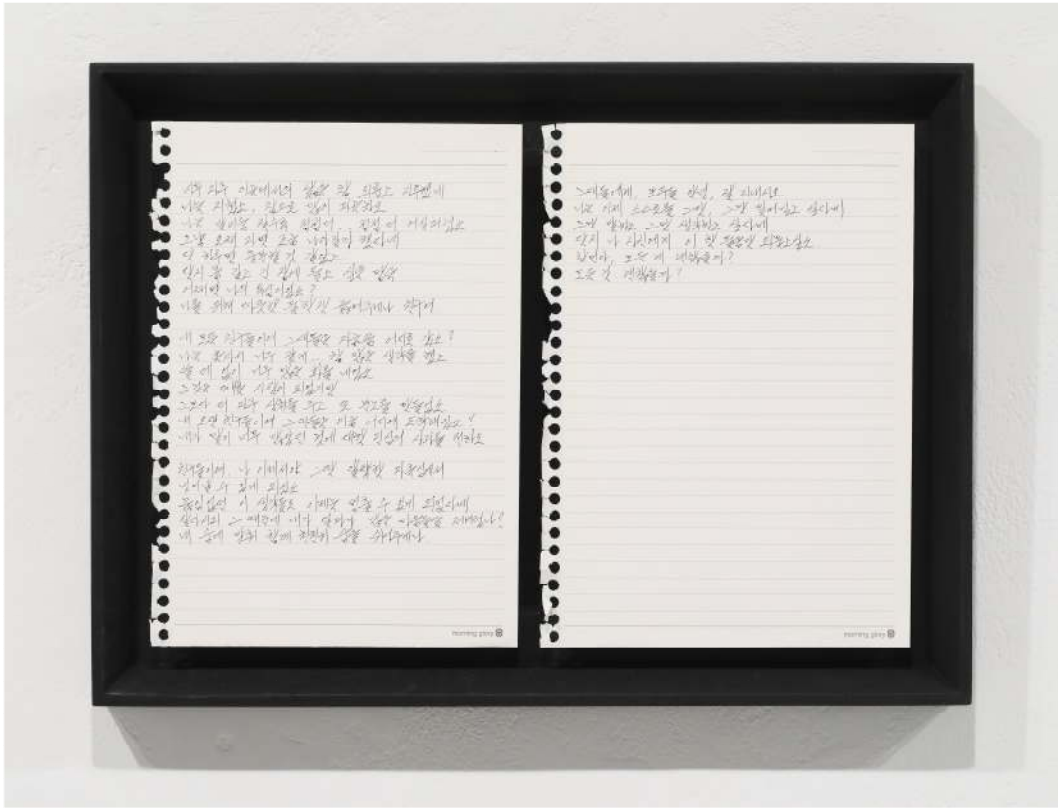
잘들 지내고 잘들 있게...
바람 불고 비 오거나
햇빛 잘드는 양지 보거든
문득 생각 한번 해주던가...

죽음 이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남은 이들의 기억 속일 것이다. 남은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담담히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진심은 그의 딸로서, 한 인간으로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작품 4】 같은 경우 문자를 가운데 정렬로 배치하였는데, 이는 마치 한 사람의 실루엣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집안의 가장이자 기둥의 역할로서 본인에게 있어서는 크고 든든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 배치를 통해 아버지의 실루엣을 은연중에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목탄과 호분의 중첩을 통해 아래로 흘러내리는 흔적들은 회화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켜켜이 쌓인 사유의 흔적을 표현하고 있다. 문자 자체가 하나의 회화적 요소를 가진 시각적 이미지로 구축되어 그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글로 적힌 유서와 화면에 그려진 유서는 하나의 작품으로 함께 배치되는데, 이는 직접 적어 내린 유서 자체에서 오는 글의 감성적인 경험과 회화에서 느낄 수 있는 서사적인 경험을 함께 느끼게 하고자 함이다. 문자와 그림은 상호 보완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더 큰 감동을 전달시켜 주는 것이다. 본인의 예술의 표현에 있어서 문자란 회화성을 지닌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작품의 부연 설명의 역할과 또 다른 감정 경험의 매개체의 역할도 하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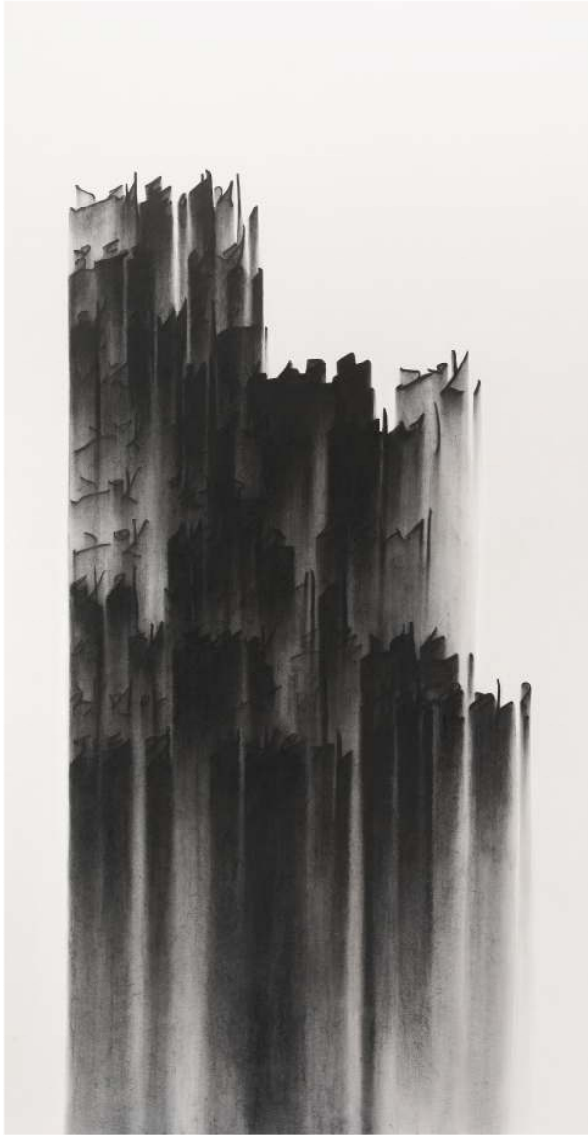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혼자서 견딜 수 없는 일을 겪게 될 때에도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며 힘이 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준 친구에게 전달받은 유서의 그 마지막 문장은 【작품 5】로 표현되었다.



【작품 5】 〈찬민이의 유서〉, 2023

그대들에게, 모두들 안녕, 잘 지내시오.
 나는 이제 스스로를 그만, 그만 밀어 넣고 싶다네.
 그만 말하고 그만 생각하고 싶다네.
 단지 나 자신에게 이 한 물음만 되묻고 싶소.
 찬민아, 모든 게 괜찮을까?
 모든 것 괜찮을까?

삶의 그 마지막에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본인의 과오와 후회를 솔직하게 적어내린 친구의 유서는 그를 잘 알고 있는 본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음과 동시에 많은 삶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다.



【작품 5】〈찬민의 유서〉,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23

【작품 4】와 같이 목탄과 호분의 중첩으로 표현된 【작품 5】는 목탄의 강약 대비를 보다 강하게 표현하여 마치 안개 낀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 목탄의 대비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문자들과 아래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검은 흔적들은 삶을 살아가며 남겨 왔던 흔적이자 삶에 대한 미련 같기도 하다. 이는 각자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이처럼 유서 작업은 문자를 적극적으로 화면 안으로 가져와 문자 자체를 형상화하는데, 이는 문자와 회화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예술로 표현하고자 함이 담겨 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상실의 경험을 미리 인지하고 받아들여 창작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사유의 시간과 사랑하는 이의 이야기를 새기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본인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 6】 〈유언〉,
장지에 혼합재료,
190x100cm, 2023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전해 듣게 된 경험은 본인에게 큰 상실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지웅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좋을까”

지금껏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고 후회로 가득 찬 문장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그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경험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로 느껴졌다. 삶을 마무리 지으며 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수많은 말 중에 그 문장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심정과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듣게 된 아들의 심정은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이다.

삶의 그 끝이 아름답기만 할 순 없기에, 우린 또 그 슬픔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에, 마음속 깊게 남은 상실의 기억들을 작품으로 위로하고자 하였다.

문자를 화면에 표현하고 몇 년이 흐르고 나서야 배경을 채워 【작품 6】 을 완성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진심을 담은 위로를 전할 수 있을지 오랜 시간 고민했기에 작품의 완성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작품으로 할 수 있는 본인의 표현 방법은 그저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었다. 항상 붓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왔지만 이 작품은 붓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으로만 작업했다. 먹을 손에 묻혀 대상을 보듬고 위로하듯이 어루만지며 화면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표현 방법은 문자를 회화화 시킨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났다. 손으로 비벼진 문자들과 손바닥으로 찍혀져 표현된 배경이 어우러져 하나의 화면을 이루었고, 이는 하나의 서사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김연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¹⁷⁾에서 ‘내리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물인가, 사랑은’이라는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슬픔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내리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것인가, 슬픔은’ 이라고 문장을 고치고 이를 작품의 제목으로 차용하였다.

예전부터 길을 다니면 보이는 쓰임새를 알 수 없는 녹슨 철재 박스들, 컨테이너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어 기록을 해두었다. 아마도 빗물과 바람, 세월에 녹아내려버린 흔적들이 본인의 작품과도 닮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의 필요로 인해 지어지거나 그 자리에 생기게 된 것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저 녹슨 것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 상실의 흔적들, 슬픔의 시간들, 녹아내린 녹물들의 흔적들은 상실의 감정을 표현하듯 내리내리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흔적들이 사진첩에 가득 모아졌을 즈음 김연수 작가의 그 문장을 만나게 되었고 수집한 이미지와 문학에서 가져온 문장을 하나의 형상으로 조합시켰다. 이는 문자를 화면 안으로 가져와 이미지화 시키는 직접적인 표현 방법이 아닌, 문장에서 느껴지는 상실의 감정 자체를 이미지로 치환시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7) 김연수, 『청춘의 문장들』, 마음산책, 2004

이 작업들은 녹아내린 녹물의 형상 표현에 집중하며, 흑백이 아닌 색채로 표현하였다. 빈 공간에 흘러내리는 녹의 흔적들을 가진 철재물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미지는 밝은 색채를 띠고 있지만 공허함과 상실감을 들게 한다. 사실적인 형상과 색채에서 오는 현실감 속 그렇지 못한 흔적들이 섞여 이질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 흔적들은 먹과 동양화 전통 채색 물감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장지와 의 상성이 좋아 앞으로 작품에서의 흔적 표현에 적합한 재료로 보인다.



【작품 7】, 【작품 8】, 【작품 9】, 【작품 10】
 〈내리 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것인가, 슬픔은〉,
 장지에 혼합재료, 70x70cm, 2023

사람은 태어나며 신체를 얻고 그 몸이 살아있는 동안을 삶이라 칭한다. 그러한 삶 속에서 이름을 부여 받고, 여러 경험을 통해 모두 다른 인격과 생각을 가지게 된다. 가족과 친구, 내가 아닌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이 죽음을 맞이하고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을 때 인간은 장례라는 의식을 치른다. 현대의 장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는데, 3일차가 발인과 운구의 과정이다. 발인(發靱)이란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영구(靈柩)를 운구하여 장지(葬地)로 떠나는 일을 말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히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發靱祭)라 한다.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며 발인제가 끝나면 영구를 장지(또는 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데 이를 운구라 한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 순으로 승차해 운구한다.¹⁸⁾ 이렇게 발인제를 마치고 운구를 위한 과정에서 위패를 모시고 영정을 모시며 다음으로 영구를 모시고, 상주와 유족이 그 뒤를 따른다. 이 장면에서의 작은 궁금중은 【작품 11】의 시작점이 되었다. 어찌 보면 살아 있을 때의 삶과는 정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발인의 순서가 그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린 가장 먼저 신체를 부여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신체의 중요성은 가장 우선시 되지만, 생명력을 잃게 된 시점부터 우리에게 신체보다 남겨진 이름과 사진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죽음 이전과 이후 하나의 신체는 생명력을 제외하고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 버리는, 사라질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세경 작가¹⁹⁾의 머리카락을 떠올리게 했다.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 지닌 머리카락은 사실 그 역할보다 사람의 외적인 특징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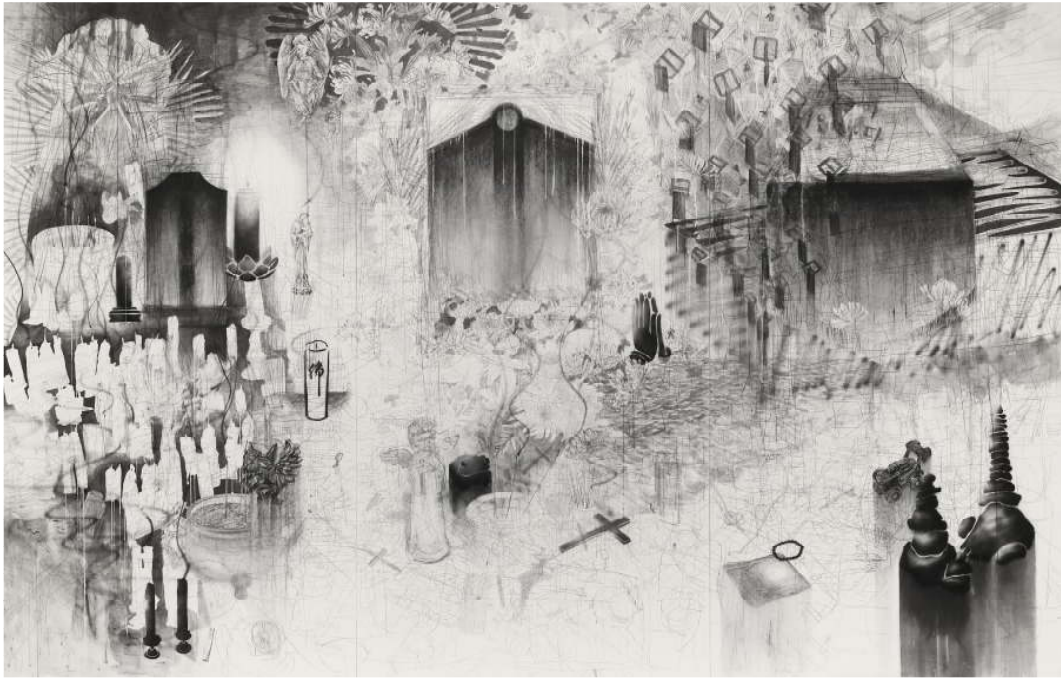
18) 장례 절차,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20

19) 일상 속에서 머리카락을 향한 극단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찰나에 주목하여, 티끌 하나 없이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백자 접시 위에 머리카락으로 다양한 문양을 그려내는 작가이다. 장승연, 『한국미술 산책』, 아트인컬처, 2012

로 여겨질 때가 많다. 본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머리카락에 대한 인식은 순식간에 변해 버린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치워버려야 할 하찮고 지저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²⁰⁾ 이처럼 하나의 대상을 향한 이중적 인식의 찰나를 발인의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나라는 하나의 대상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생명을 다하는 찰나의 순간 삶에서 가장 먼저 부여받으며 중요하게 여겨지던 신체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한 감정을 몰고 왔다.

대상의 이중적인 인식에 대한 의문점으로 시작된 【작품 11】은 긴 작업의 과정을 통해 본인이 경험했던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대면하고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화면의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발인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위패, 영정사진, 영구의 순서로 표현되었는데, 초와 함께 가장 앞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위패의 경우 본인의 이름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이름을 겹쳐 적어 내려갔고, 수많은 국화에 둘러싸인 영정사진 또한 본인과 주변인들의 모습을 중첩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는 【작품 4】, 【작품 5】의 유사 작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겪게 될 상실의 경험을 미리 인지하고 받아들여 화면에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창작의 과정을 통해 본인은 상실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담담히 표현함으로써 상실의 감정을 덜어내는 일종의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주변인들과 본인이 갖게 될 상실의 감정을 미리 인지함으로써 현재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함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 장승연, 『한국미술 산책』, 아트인컬처, 2012



【작품 11】 〈발인〉, 장지에 혼합재료, 190x300cm, 2023

작품의 표현 방법으로는 앞서 중첩의 표현에서 언급하였듯이 연필과 목탄, 먹과 호분을 사용하여 중첩 만들어내며 변화와 울동, 우연의 효과들을 보여준다. 겹과 겹 사이에서 느껴지는 화면의 다양성과 깊이감을 통하여 본인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상실의 감정을 표현한다. 수많은 선들의 중첩으로 표현된 일상의 혼재 속에서 [도판 1] 에서 설명한 스텐실 기법으로 여러 도상들과 오브제들을 보다 선명하게 표현하여 상실의 경험을 또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화면의 깊이있고 다양한 표현은 보는이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Ⅲ. 결 론

최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내면의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며 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으로 쉽게 꺼낼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다. 이를 솔직하고 꾸밈없이 마주하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실의 감정을 마주하고 작업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이는 슬픔과 고통을 수반한 감정이었지만 작품으로 발현되어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본인은 학창 시절 겪었던 상실을 경험을 시발점으로 본인과 주변인들의 상실에 주목하였다. 삶에서 경험하게 된 상실의 감정들은 내면에 축적되었고, 작업을 통해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들은 솔직하게 표현되었다. 상실의 감정과 경험의 표현 방법으로는 문자를 회화에 적용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이론을 연구하여 논문에 서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문자와 회화의 근본을 동일시 여기는 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인 또한 문자와 회화의 구분을 없애고 이를 융합하여 하나의 예술로 표현함을 목표로 두고자 한다. 또한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창작 과정은 본인의 마음속에만 존재했던 상실의 감정을 마주하고 솔직하게 나타냄으로써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술의 치유적 기재를 경험하게 하였다.

본론의 제Ⅱ장 예술의 경험 중 제1절 상실의 감정과 경험에서는 개인적 경험으로 느끼게 된 기능적 상실이 작업의 동기가 됨을 설명하였으며, 개인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구성되는 경험을 존 듀이의 경험론을 통해 서술하였다. 이는 본인의 개인적인 상실의 경험이 외부의 다른 경험과 재구성되어 내면에 축적되었으며, 이를 창작 과정을 통해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응축된 슬픔과 고통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환기함을 보여주었다.

제2절 문자와 회화에서는 동양의 미술사에서 문자와 회화의 근본을 동일시하며 한 이미지에 표현됨을 설명하였으며, 현대미술에서는 문자가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본인이 작품에 사용하고 있는 문자의 표현을 설명하고, 문자와 회화를 하나의 예술로 표현하고자 함을 언급하였다.

제Ⅲ장 경험의 표현 중 제1절 중첩을 통한 표현에서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목탄, 먹, 호분의 재료를 중첩과 스텐실 기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마지막 제2절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표현에서는 상실의 감정과 경험을 화면에 표현하게 된 경험들을 설명하고 이를 그려내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인의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회화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본 논문은 작업의 의미와 깊이에 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예술로 표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상실의 경험을 모티브로한 본인의 작품은 대면하기 힘들었던 과거의 상실의 기억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상실의 경험과 대면하면서 그동안 내면에 축적된 상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작품을 통해 내면에 응축된 상실의 감정들을 긍정적 방향으로 풀어내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하며, 앞으로의 작업을 통해 상실의 감정을 경험했고 경험하게 될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치유의 영역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춘경, 이윤주,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J.G. 브렌넨, 『철학의 의미』, 학문사, 1977
-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언 옮김, 책세상, 2020
- 존 듀이, 『민주주의와 경험』, 이홍우 옮김, 교육과학사, 2007
- 국사편찬위원회, 『그림에게 물은 사대부의 생활과 풍류』, 두산동아, 2007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 1991
- 이수균, 『건축가, 장세양』, 문자와 이미지1 - 쓰여진 이미지와 그려진 이미지,
1996년 10월호
- 유홍준, 『조선시대 화론 연구』, 학고재, 1998
- 이정화, 『일희일비하는 그대에게』, 달꽃, 2020
-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
- 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옮김, 홍성사, 1980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김그루, 『낙엽 하나가 자랄 때』, 지식과감성#, 2018
- 김연수, 『청춘의 문장들』, 마음산책, 2004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20
- 장승연, 『한국미술 산책』, 아트인컬처, 2012

학술자료

- 김서우, 「‘기억에 의한 감정’의 회화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
- 황정미, 「사적경험의 시각화와 그 서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 장미, 「주관적 경험의 회화적 서술과 공간 표현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 남예진, 「엔터테인먼트 공간에서 '하나의 유희적 경험' 연구 :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2021
- 홍지운, 「自作詩를 통한 多元的 融合과 現代東洋畵의 變容」,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2
- 신현경, 「시서화삼절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서설」,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0
- 정경숙, 「1950년대 이후 한중일 문자예술 비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2022
- 이정은, 「먹과 흑연의 재료적 습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
- 정동암, 「水墨畵의 불규칙한 먹 번짐양상 구현을 위한 水墨畵 저작도구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전산대학원, 2000

사이트

-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ABSTRACT

Artistic Explorations of Loss: Expressions of Emotion and Experience – Centered on My Own Creations –

Lee, Narim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explores the intricate portrayal of emotions and experiences of loss within the realm of Oriental painting,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exhibition titled 'Illuminating Moments for Every Death and Spirit to Remember,' which serves as the centerpiece for my Master's degree thesis in 2023.

In Oriental painting, art finds its roots in myriad external influences—life experiences, thoughts, and deeply stirring emotions that emerge from within. My artistic creations serve as a reflection of personal thoughts and emotions, particularly centered around the intricate tapestry of feelings associated with loss. To encapsulate this essence within my work, I embarked on a journey

to confront and embrace the multifaceted sense of loss stemming from diverse interactions across various life experiences, eschewing reliance on a singular defining event. Visualizing these emotions and experiences of loss prompted me to combine text within the realm of painting, creating a harmonious fusion that conveys a unified intrinsic thought and emotion. Furthermore, this thesis delves into the exploration of materials and methodologies, seeking to articulate these intangible emotions of loss by capturing them as visible imprints on the canvas. The employed expressive techniques capture emotions through strokes and hues intrinsic to Oriental painting, manifesting as traces.

Feelings of loss, often accompanied by a profound sense of sadness and pain, gradually transform into artworks during the artistic process. Through creative expression, my intention is to serve as a conduit, facilitating the healing and ventilation of these internal adversities. These deeply personal yet universally relatable experiences of loss transform into artworks that aim to offer solace to viewers—an open acknowledgment and portrayal of emotions unveiled upon the canvas.

Within the realm of Oriental painting, this thesis aims to honor the emotional depth inherent in loss, transmuting these profound sentiments into visual tapestries that resonate with the human spirit.